

# 춘절 유커 '열풍' ... 광주·전남은 '무풍'

(중국인 관광객)

### 2000여명 왔지만 백화점 찾은 인원은 500명도 안돼

### 구입 물건도 화장품·핸드백... 체류형 상품 개발 시급

중화권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기간 광주·전남을 찾아 광주시내 대형 백화점을 들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은 전국을 휩쓴 유커 특유의 '무풍지대'였던 셈이다.

5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중국 춘절 연휴(2월18~24일) 기간 광주·전남에 온 2000여명의 중화권 관광객 중 광주 시내 대형 백화점 2곳을 찾아 쇼핑한 유커는 5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가 비슷한 조건에서 4000여명의 중화권 관광객을 맞아, 이 지역 백화점과 면세

점 등이 유커의 '씩쓸이 쇼핑' 덕에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지역 백화점 한 관계자는 "춘절기간 중국 전세계 편이 늘었고 정기노선편도 증편해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늘었지만 정작 백화점을 찾은 수는 줄어 백화점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광주·전남의 경우 유커의 관광 일정을 관리하는 여행업체들이 관광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면세점이나 백화점은 잠시 둘러보는 정도의 코스로만 활용돼 매출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사실상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중화권 관광객들은 광주와 전남을 '구경'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쇼핑과 숙박은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춘절기간 광주를 찾은 유커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고속버스를 통해 광주에 도착한 뒤 인근 백화점에 들러 1~2시간 정도 잠깐 쇼핑을 하고 다시 부산이나 제주도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백화점 매출은 늘지않고 판매 또한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한 백화점의 유커 구매 인기 품목을 보면 화장품, 핸드백, 영캐주얼 순으로 타 지역이 명품이나 가전 등 단가가 높은 품목에 집중되는 점과 대조된다.

지역 백화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관광객의 소비 행태에 맞게 명품 매장을 늘리고, 중국어 통역요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정작 고객이 찾지 않으니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유통업계와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과 쇼핑 인프라 구축 등 광주·전남만의 전략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와 부산 등을 가기 위해 거쳐가는 '정거장'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서 유커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헬크 따라하니 재밌어요 5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열고 있는 'Life is a Comedy'를 찾은 어린이들이 유머가 담긴 '겁쟁이 헬크'의 모습을 따라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호반 "중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 금호산업 인수"

### 금호산업 보유 지분 전망 매각

### KBC광주방송 투자주주와 추진

국내 대기업이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를 포기한 가운데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인수전에 뛰어든 호반건설이 다른 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산업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KBC광주방송 투자주주들과 금호산업 인

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복수의 전략적투자자(SD)들과 손을 잡게 돼 호반건설의 자금력이 늘어날 수 있다. 금강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44억원, 현금화 가능한 장단기 금융상품 1851억원, 관계사 대여금 2188억원, 기타 단기 대여금 56억원 등 활용 가능한 현금 총액은 4439억원 규모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보유했던 금호산업

지분도 전망 매각했다. 주가 차익을 노린 인수전 참여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지분(4.95%) 전망을 매각했다는 게 호반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호반건설은 유력한 인수후보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과 컨소시엄 구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인수전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거론된 박삼구 회장의 '백기사 역할'로 나설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반건설 외에도 MBK파트너스와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컨소시엄, IMM PE, 자베즈파트너스 등 적격 인수 후보들은 실사 참여를 위한 협약서를 매각 자문사에 제출했다. 이 협약서에는 '금호산업 지분 50%+1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회장과 컨소시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5주간 일정으로 금호산업 실사에 나서게 된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고속 인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예정일이 9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삼구 회장이 이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8.39 (+0.09)      금리 (국고채 3년) 1.98%
- ▲ 코스닥 631.43 (+1.08)      ▲ 환율 (USD) 1101.30원 (+3.60)

## 한전, 전기차 충전소 사업 나선다

### 현대·기아차와 손잡고

### 322억 들여 5580기 설치

한국전력이 현대·기아차 등과 손잡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에 나선다.

한전은 6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와 제주도, 현대·기아차, KT, 비건스, SG협동조합, KDB자산운용 등 8개 기관이 서명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유료화사업 MOU 체결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한전은 현대·기아차, KT 등과 오는 5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전기차 보급의 장애요

인인 충전소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서비스 유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3년간 322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총 5580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중 제주에는 3750기(200억원)가 들어선다.

그동안 전기차는 충전소 부족으로 인해 확산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한전 등이 충전소 구축에 참여해 24시간 유료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충전소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전력요금은 kWh당 2390원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 광주 아파트 매매가 0.22% 올라 상승폭 전국 최고

### 전세가는 0.17% ↑

봄 이사철을 맞아 지난해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으며 매매가격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전세가격은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매매가격은 0.82%, 전세가격은 1.23%나 오른 것이다. 광주의 매매가 상승폭은 전국 수위를

차지했다. 전주보다 0.22%가 올랐고, 이어 경기(0.19%), 서울(0.18%), 대구(0.17%), 충북(0.14%), 제주(0.12%), 경북(0.11%) 순이었다. 전남(-0.06%)은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경기(0.28%), 서울(0.24%), 충북(0.23%), 대구(0.21%), 광주(0.17%) 순이었다. 전남은 -0.05%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봄철 이사를 준비하는 매수문의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 전남 어업생산량 15만1903t ... 전국 1위

### 통계청 '1월 어업생산 동향'

'수산업의 보고(寶庫)'인 전남의 올해 1월 중 어업생산량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5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중 어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15만1903t으로, 전국 생산량(32만3841t)의 46.9%에 달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 가량이 전남산(產)인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 생산량과 비교하면 2만4625t, 비율로는 19.3% 증가했다.

생산금액도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1694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억4600만원(1.3%) 증가했다.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2위는 경남이 차

지했다.

김류와 다시마류, 납치류 등 천해양식 어업이 일등공신이다. 1월 중 천해양식 어업 생산량은 14만78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증가했다. 단, 생산액은 1192억원에서 1153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내수면 어업도 천해양식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생산량이 43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9% 증가했다. 뱀장어, 붕어류 등이 증가세를 이뤘었다.

반면 일반해면 어업의 경우 고통어와 삼치류, 멸치는 증가했으나 굴류, 민어, 참돔, 문어류의 생산이 줄면서 전반적으로는 1년 전에 비해 7t(0.1%) 가량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 김서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올미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